어떤 일이든 손도 대기 전에 성공하는 법

(골1:15~23)

18.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어떤 일이든 손도 대기 전에 성공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뭘까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성공의 정의는, 궁극적으로 마음에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을 때 우리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잘되면, 사업이 잘된다든지 자녀가 일류대학에 들어갔다든지 딸을 재벌가에 시집을 보냈다든지, 이렇게 되면 성공이라고 생각할 때, 이때 내 체면이 세워지고 사람들의 찬사가 주어지면서 긍지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부산물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고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내 마음에 변함없는 만족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만족하고 기뻤다가 내일 재벌가로 시집간 내 딸이 사위가 못된 짓을 해서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행복이라고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공이 내 마음에 변함없는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일 때, 이 참 성공은 내게 주어진 일들에 내가 손을 대기도 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손을 대서 그 일을 잘 함으로써 성공해서 마음에 만족하고 기뻐지고 행복해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실패인 거예요.

반드시 참 성공은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 사업에 내가 손을 대서 잘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사업을 번성시킴으로써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사업이 주어졌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손을 대기도 전에 이미 그 사업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성공해야지 진짜 성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일 때문에 기뻐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에 임할 때의 모습이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자신으로 기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으면 그 일을 성공해야 되는데, 그 일 때문에 주어지는 성공은 손도 대기도 전에 이미 주어지는 거라 이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최근에 있었던 어떤 만남을 통해서 느꼈던 점을 함께 나누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얼마 전 불쑥 전화가 왔어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십니다.
굉장히 다급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제가 전화로는 파악을 못하겠어요.
어떤 뚜렷한 결론 없이 그냥 말씀을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권면의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강릉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꼭 목사님을 만나서 해결을 봐야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참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금년 1월부터 말씀을 들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잘 이 제로원복음이 지향하고 있는 신앙적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통화만으로 판단해볼 때.

그래 강릉에 오셨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 진퇴양난이시더군요, 경제적으로.
자식들을 데리고 외국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전에 남편을 도와 사업을 해서 남편이 경영을 했지만 실제로 재정문제 모든 것을 이분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갈 때도 남편이 재정에 대해서 어두우니까 다 잘 단도리를 하고 나가셨어요.
근데 갔다 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이 대출을 받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래서 빚이 산더미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메꾸려고 수도권에 있는 재개발지역의 집을 구입해서 16세대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한참 재개발 붐이 일다가 이제 막차를 타서 그것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건데 팔리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열여섯 세대다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된 곳이니 그 아파트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수도 고쳐 달라, 전기 고쳐 달라, 아주 신경이 곤두서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주유소를 하나 인수했어요, 줄을 서서 자동차들이 들어왔었는데 가격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서 그 이전 주인보다 조금 비싸게 하니까 40% 차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윤이 비슷한 거 같아요.
건너편에 새로운 주유소가 생겼는데, 싼 값으로 파니까 그리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60%로 만족해야 되는가, 박리다매로 이전의 북적거리던 때로 돌아가야 되는가, 늘 고민이 되는 겁니다.
또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원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아, 참! 듣기만 해도 딱해요.

한참 듣고 있는데, 이분이 희한한 고백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10년 넘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중간에 믿게 되셨는데 참 재밌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한 번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식들 데리고 외국에 나가서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는커녕 그 이후로 형편이 나빠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분은 세상에서 돈과 자식들의 형통과 이런 것들을 마음에 진심으로 원하고 계시는데 안 주셨어요, 근데 전도를 하십니다.
원하는 게 세상 것이고 하나님이 한 번도 주신 적이 없는데 전도하는데 이분의 전도가 먹히는 거예요.
가족들뿐 아니라 동생이라든지 이웃들도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간다고 해요.
참 모순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것은 세상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주신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가 먹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사에요, 모든 사람이 전도해야 되지만 이분이 그러는 가운데서도 전도를 하고 전도가 먹힌다는 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말씀을 다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이 빚을 지게 된 것을 내가 해결해보겠다고 뛰어들어서 재개발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한 것을 회개 했느냐고, 그랬더니 회개했대요.
회개했는데도 아파트를 안 팔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에게 전도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회개를 했는데도 그 아파트가 안 팔리는 이유는 하나다, 16세대를 이제는 남편이 만들어놓은 빚을 메꾸기 위해서 사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던 것, 이제는 돈을 쫓아가는 마음으로 아파트를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파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자, 16세대가 꼼짝없이 그 안에 머물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어장이냐?
허락하신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무엇이 고장 났다고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미안하다고 달려가서 잘 고쳐주고, 그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돌봐주고 그러면서 기회를 봐서 전도하자!
그리고 주유소도 그렇다, 내가 돈을 벌거면 올려서 60% 해서 같은 이익 수준으로 벌거냐 아니면 박리다매로 할거냐, 박리다매로 하면 기름통에 기름을 자주 바꾸고 넣어야 되는 일이 다 귀찮은 일인가 봐요.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돈이 아니라, 많은 차들이 올 때 접촉면이 늘어나고, 내가 전도쪽지 하나라도 끼워서 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이렇게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 그게 사업체건 가정의 상황이든 재정상태, 심지어 건강상태라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지금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일에 손도 대기 전에 내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이상한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으로 두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가득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충만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사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우리는 손을 대서 잘해서 이익을 남김으로서 성공하고 싶어 하고 기쁨과 만족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웃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것은, 내게 사업을 허락하셨으면 그 사업으로 인한 충만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업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만족하고 기뻐지는 충만함이 사업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을 잘함으로써 내 마음이 충만하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업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챌 때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손도 대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데도, 내 마음대로 빚을 청산하기 위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강구한 것을 잘못했다고 충심으로 회개했는데도 안 팔아주신다면, 그 16세대가 사는 아파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확신이 되면, 안 팔려도 이미 내 마음에 성공적인 만족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주유소를 주셨다고 하면 주유소를 통해 내 손에 들어오는 이익금이 얼마인가 이전에 이미 그 주유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느껴지고 충만해지는데, 그 뜻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인해서 자식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쁘고 싶은데, 자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만족과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때 충만하게 되고, 그 뜻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게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허무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세상적으로 성공을 잘 해놓고도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지 않고 정말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들인데, 왜 안 될까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가슴으로 그 일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사업체를 주신 이유는 내가 가슴으로 사업을 향해서 손을 대고 잘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사업체에 등을 돌리고 가슴으로 하나님으로 향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요?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첫 번째로 부활하셔서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바로 그 뜻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이 세상에 주어져있는 것들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으뜸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주님은 세상에 내려오셔서도 이 세상을 등지시고 가슴으로 하나님아버지를 향해 계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십자가의 고통이 예감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십자가에서 등을 돌리고 마음으로 하나

님을 향해 계셨고, 부활하셔서도 하나님께로 가슴을 향하고 이 세상에 등을 돌리고 올라가버리고 마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방향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등을 돌린다는 얘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계실 때, 주님이 등 돌리신 세상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주님 안에 들어오시고, 그 주님을 통해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세상에 대해 등을 돌렸을 때 주님 때문에 세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사업체에 대해 등을 돌릴 때, 내가 등 돌린 것 때문에 사업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자식들에 대해서 등을 돌릴 때 내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느껴지고, 그럴 때 나를 껴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자식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당신의 손으로 사업체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 마음은 이미 내 손을 대기도 전에 등 돌리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앎으로써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렇게 자기와 연관된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등을 돌릴 때 그 파장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한 사람의 교인이 관계하고 있는 삶의 영역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집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관계하는 영역마다 등을 돌리면 그 등을 돌린 영역마다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므로 당사자들이 충만해지고 기뻐지고, 등을 돌린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러다보면 만물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가슴으로 세상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단절되면서 이제는 그 일에 손대서 아무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했다고 해도 남는 게 허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 기쁜 거예요, 지나면 허무밖에 없어요.
명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두르고 다녀도, 잠시 동창들을 만날 때 자랑하느라 기쁜 거지, 그 명품 때문에 기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서 기쁜 게 진짜 기쁜 것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십자가사건을 통해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19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한 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 병에 걸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손을 대가지고 병이 낫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병이 걸렸으면 이 병에 걸린 상황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겁니다.
등을 돌린다는 것은 병이 걸렸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 등 돌린다는 것은 사업을 통해서 기뻐하려는 마음을 죽이는 겁니다.
자식에 대해 등 돌린다는 것은 자식을 잘 길러서 행복해지겠다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자식에 등 돌린다는 것은 자식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자식이 없다고 불평이 나오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자식에 대해 등 돌리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있고 세상에 등을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 모든 내가 등 돌린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거울로 보듯이 명확하게 내 마음에 비쳐질 때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고 게다가 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질 때 주님 안에 두셨던 그 충만함이 나한테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일은 다 프리즘 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빛이 분산되는 스펙트럼처럼 나타나는 일이라고 했어요.
즉, 내 사업도 내 가족도 내 몸도 재정문제도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과해서 나타난 스펙트럼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느냐 하면 예수님처럼 가슴으로 하나님아버지를 향할 때 그 뜻이 내게 알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손대서 성공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등을 돌려서 주님과 연합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게 등을 돌리는 것이고 죽는다는 건 그것으로 기뻐하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 그것으로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죽는다는 게 그거에요.

그렇게 등을 돌리고 나면 하나님으로 기뻐지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가 밝혀지면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집사님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활동력과 전도의 은사만 있으면 안 팔리고 있는 16세대는 사역지가 될 것이고 주유소도 전도의 사역지가 돼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기쁨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더 이상 돈을 쫓아가지 않게 됩니다, 주유소에서도 돈 쫓아가고 16세대 볼 때마다 돈 쫓아가고 그러던 것이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겠다는 마음으로 바꾸게 되면서,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분이 하신다면, 그러니까 그분의 일을 전부 나한테 적용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미 마음이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 집을 이렇게 안 팔리게 하셨고 주유소를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알고 매진하게 될 때, 돈 문제는 다시는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마음도 빚을 질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이건 예언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인해서 만물이, 왜냐하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물 중에 몇 십 개씩은 다 관계하고 있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 대상들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됨으로써 그 모든 대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관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언제나 주님과 연합할 때만 알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만물은 내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을 통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까.
프리즘 되시는 주님을 통해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니까.
주님과 연합하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세상을 등질 때 등진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면서 나는 이미 충만한 성공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등진 것들은 하나님의 뜻의 손길이 닿아서 이끌어가시게 되니, 이게 복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손도 대기 전에 성공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손대는 것 자체가 독이고 또,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지와 축복으로서의 사명들을 부담으로 걱정거리로 바꾸는 죄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과 연합하여 세상을 등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심으로써 주님 안에 두셨던 충만함이 나의 것들이 되어서 복지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